



밀알&세계 **MILAL & WORLD**

03 2018 | Vol.307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비단 당사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형을 둔 어떤 분이 어린 시절 “형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 운동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아려왔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어찌다가 다리의 장애를 갖게 되었느냐?”고.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 참 많은 가정에 불어 닥쳐 멀쩡한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고, 가정을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만든 증오스러운 이름. 밝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한 인생이 소아마비에 걸려 그늘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눈물지며 생을 이어가야만 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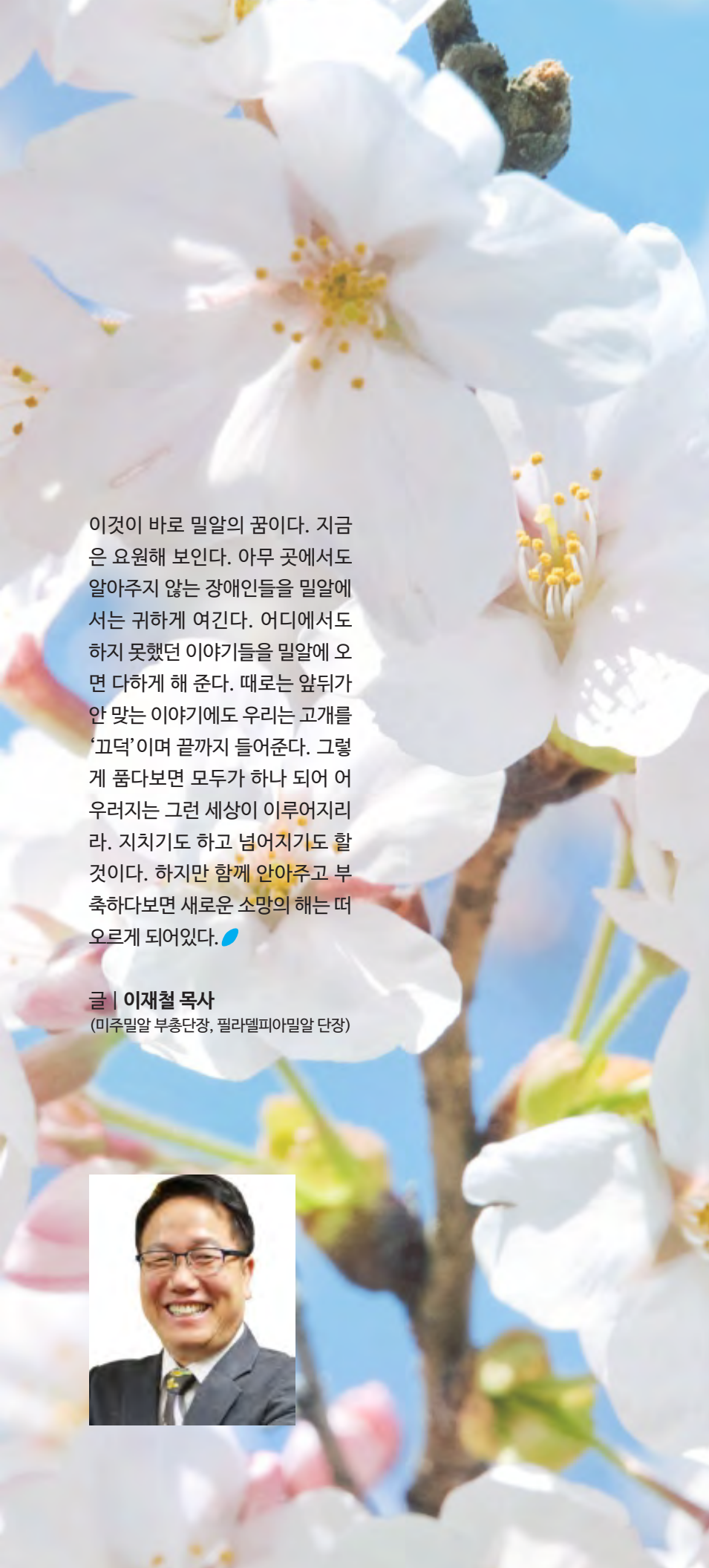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셨다.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지평) 파출소에 근무하실 때에 동료 경찰관이 세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중에 고 순경님은 아버지와 막역하게 지내는 동료이자 아우였다.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은 나와 동갑내기였고, 그 밑에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몸을 많이 뒤틀고 말이 어눌한 것을 보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 뇌병변(뇌성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얼굴도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입에는 항상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자기 오빠보다 나를 더 좋아해 나만 보면 항상 웃고 ‘기우똥’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다. 어느 날인가 엄마에게 “그 아이 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까지 했다.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장애인사역을 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지금 어느 하늘아래 살고 있을 그 아이(지금은 중년)에게 사죄하고 싶다.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을 섬긴지도 어느새 16년차에 접어든다. 밀알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 아동들은 모두 30명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이라고 부르기에선 너무 장성해 버린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 내가 처음 단장으로 올 때 만해도 어리고 어리던 아이들이 16살을 더 먹었으니 거의 없는 셈이다. 미국은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가 특별한 나라이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에서 고등학교(High School)까지는 특수 학급(Special Class)이 있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준다.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이다. 보통일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장애가 심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자녀를 복지 홈에 데려다 놓고 나오며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가끔 만나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자식과 생이별을 하고 살아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라! 한국음식을 먹지 못하는 불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나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자칫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을 그들은 날마다 꿈꾸며 산다. 그들도 남들처럼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그들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애뜻한 사랑을 나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 가족이 필요하다. 그 장애를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가장 측근의 사람들이 가족이다. 바라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지만 그 장애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하는 분들이 가족이다. 장애아동이 일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밀알의 꿈이다. 지금은 요원해 보인다. 아무 곳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장애인들을 밀알에서는 귀하게 여긴다. 어디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밀알에 오면 다하게 해 준다.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다 우리는 고개를 '고덕'이며 끝까지 들어준다. 그렇게 품다보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함께 안아주고 부축하다보면 새로운 소망의 해는 떠오르게 되어있다. 🌸

글 | 이재철 목사
(미주밀알 부총단장,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표지사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애틀랜타밀알에서 2018년도 미주밀알 단장회의가 열려 이재서 세밀연 총재와 미주 각 지역 단장, 지소장들이 모여 올해의 사역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마친 후 인근 지역을 잠시 여행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차례

- 02. 칼럼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 04. 단기선교 보고
방글라데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 06. 원대한 비전
꿈의 세월, 필라델피아밀알 31년
- 08. 나눔의 기쁨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 09. 밀알과 함께
하나님께서 밀알에 보내신 이유
- 10. 새로운 시작
마이아미에 밀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 12. 2018 미주밀알단장회의
함께 맞잡은 손
- 14. 예수를 전하다
아르헨티나밀알 여름 선교여행

밀알&세계

뉴욕 · 코네티컷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307호 | 2018년 3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강원호, 정택성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코네티컷: 203-733-0156
뉴저지: 201-530-0355 | 필라델피아: 267-475-8637
캐나다: 416-491-0002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선교 보고

방글라데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명이 방글라데시 아가페 스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남긴 글입니다. 방글라데시 아가페 스쿨이 올해로 6년이 되어 첫 단기선교팀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방글라데시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극진히 섬겨 주신 이해진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기 방글라데시 꿈잉팀을 계획하고 다녀오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땅을 위해 헌신할수 있음에 감사했고 열흘간의 사역일정을 통해 더욱더 감사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별히 나의 첫 선교지 방글라데시에서 얻은 사명이 있다면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내 삶이 주관되고 나를 좀 더 내려놓아 주위를 둘러보게 하심으로 감사할수있는 마음을 주신것 같다. 9박10일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아쉽지만 그곳의 일정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시간들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맹다니엘 학생)





방글라데시는 나의 2번째 선교지였다. 첫 번째 선교지와는 달리 방글라데시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남고 정신과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상이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지지로 이 땅을 밟게 된 나는 뿌연 공기와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고 그 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까?' 그만큼 선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에도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흘 간의 여정을 보내면서 한가지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이곳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했고 뿐만 아니라 좋아했다. 나를 보고 웃어줬으며 기뻐해 주었다. 사랑은 환경이나 언어 상황을 초월하는 단어이다. 나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민만기 학생)

방글라데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나는 방글라데시에 대해 소개할 때 '사랑스러운 나라'라고 소개하곤 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스럽다'라는 말과는 조금 먼 나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통해 보여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방글라데시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처음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것은 수많은 모기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클락션 소음, 뿌연 먼지바람, 특유의 냄새와 어딘가 눅눅하게 느껴지는 공기였다. 하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바로 아이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이 모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아이들은 순수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순박함은 더욱 빛이 났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조차 나에게겐 빛이었다. 이 아이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팀에게 '조화로운'을 가르쳐 주셨다.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여 서로 한 몸 되어 연합함을 체험할 수 있었다. 10일 간의 길지 않은 일정동안 우리 아이들, 여러 선교사님, 목사님,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열악하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선교를 마치며 감히 다음 선교를 기약해보았다. 다시 이 사랑스러운 나라, 방글라데시에 갈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것이다. (황인애 학생) 🌊

정리 | 뉴저지밀알 편집부

■ 원대한 비전

꿈의 세월,
필라델피아밀알
31년



사람이 30년의 세월을 살면 인격체를 형성해가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흔히 쓰는 말로는 ‘강산이 3번 바뀌는’ 세월입니다. 그만큼 1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인생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많이 살아왔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이 금년으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미주지역에서 사역하는 17개 밀알 지단장(지소장)님들과 사역자들이 필라델피아에 집결하여 Conference를 열어 미주밀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에 하나를 더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밀알선교단은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는 시각장애인 이재서 총재가 있습니다. 그는 15세에 원인불명의 고열을 앓은 후 시력을 상실하는 불운을 겪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던 이재서는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서울맹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지만 현실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그때 만난 한 목사님의 격려가 그를 살립니다. “시각장애인은 비록 육안은 잃어버렸지만, 지혜를 분별하는 지안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각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총신대학교 3학년에 재

학 중이던 이재서 전도사는 1979년 10월 16일. 뜻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한국밀알선교단〉을 창립하게 됩니다.

1984년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데 그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가 미국에 온 최종 목적은 세계에 밀알선교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필라델피아밀알이라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리지(Philadelphia College of Bible)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이어 템플(Temple)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행정으로 석사학위(M.S.W.)를 받고, 1994년 5월 루트거(Rutgers)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합니다. 현재는 모교인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과장으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그마한 꿈은 현실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밀알선교단이 장애인선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서 총재는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9년 전에 밀알이 시작되었지만 그날 저녁이 있기까지 많은 시간과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 처음 가졌던 생각과 정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7년 2월 5일. 당시 유학생이었던 이재서 전도사와 뜻을 함께하는 청년들이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선교의 꿈에 사

로잡혀 사는 이재서 전도사의 열망에 모두가 매료되어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곁에는 황성기 초대단장이 있었고, 손갑원 총무(기쁨의교회 장로)가 있었습니다. 꿈으로 뭉친 그들은 수화를 배우기 위해 워싱턴까지 오가며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그들이 있었기에 장애인선교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10일. 이재철 단장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LA로 이민을 와서 그곳에서 정착하리라던 그는 갑작스럽게 필라델피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열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재철 단장은 오로지 꿈을 안고 꿈에 사로잡혀 달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새로운 콘셉트와 규모로 밀알의 밤을 개최하며 사역의 폭을 서서히 넓혀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가진 믿음은 ‘진실은 통한다.’였습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필라델피아밀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어려워진 경제 탓에 재정도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 31년을 이끌어 오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단장님은 특유의 밝은 얼굴로 사역을 위해 달립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시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아름다운 꿈을 풍성하게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작년 겨울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밴쿠버밀알에 왔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를 시작하지 일 년이 되었네요.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동영상을 보았어요. ‘무급여로 일한다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강의 영상이었는데,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바로 밀알이 떠올랐어요.

사실 친구들을 사랑해서, 또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만, 가끔 처음 봉사를 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을 잃어가며 해이해질 때가 있었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닌 그냥 봉사인데,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네?’ 하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영상을 보고 난 후, 또 최근 봉사자 교육 때 목사님이 밀알

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를 듣고 난 후에 깨닫고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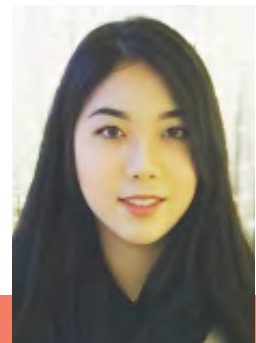
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걸까요? 왜 그 사람들이 아닌 하필 ‘나’에게 거저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에게 의해 나눠지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책임과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을 덜 불공평하게 만들어 갈 책임과 특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노력하면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눈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깨달으며 살아가기 힘든 것, 또 실천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밀알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 같이 해나가고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올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무엇을 더 나눌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기다려주세요. 봉사를 하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항상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밀알에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해요. 또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

글 | **하나경** (밴쿠버밀알 봉사자)



■ 밀알과 함께

하나님께서 밀알에 보내신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Children's book illustrator로 일하고 있는 오주원입니다. 2015년 처음 밀알에 오기 전 저는 당시 대학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 준비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크면 누군가

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밀알에 왔던 날, 저는 어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을 며칠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실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 친구 한명이 처음 보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며 꼭 안아주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배시간 중에 친구들이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날 느꼈었던 것과 같이, 이곳에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라고 예배 중에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밀알에서 벌써 3년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 친구들이 남들보다 불쌍하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러 이곳에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기대감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바이블 스터디는 봉사자들이 직접 장애인 친구들에게 쉽게 명을 가르치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역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삶의 경험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듯이, 장애인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바쁘다는 핑계와 그만큼의 당장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만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 IN2교회를 통해 밀알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지금이 아니면 더 나중에 미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참여

어쩌면 밀알에서 첫날 저를 안아주었던 장애인 친구가 준 설명 못할 위로 하나로 제가 이곳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또 다른 한 생명을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뉴욕밀알을 섬기게 될지는 모르지만 3년 전에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토요일마다 사랑의교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글 | 오주원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마이아미에 밀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마이애미 밀알

2018년 1월 19일, 이재서 총재님과 사모님, 워싱턴밀알 단장이신 정택정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애틀랜타밀알 단장이신 최재휴 목사님께서 우리 마이아미 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셨다. 이분들의 방문은 짧게는 반년, 길게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마이아미한인장로교회 장애인 사역부인 소망부가 족과 나를 2017 밀알 사랑의캠프에 다녀올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캠프를 다녀온 후기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밀알선교단과 우리 작고 연약한 소망부를 통하여 하실 일이 기대된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밀알선교단의 귀한 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를 방문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번 방문이 그 캠프 후기에서 가졌던 막연한 기대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에 더욱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 같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처럼, 방문하실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준비하는 모든 일에 많이 예민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내 안의 주님은 이런 나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준비시키셨다. 나는 정말 행복한 마르다였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누군가가 마리아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지난 사랑의캠프에서 헌신적으로 캠프를 준비한 많은 마르다들로 인해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만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이었다. 여러 동역자들이 각자 분담한대로 손님들을 잘 섬겨 주셔서 참 감사했다. 20일에 있었던 교회 뜰에서의 아름다운 식사, 저녁 세미나, 그리고 21일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들은 장애인들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았다.

우리 소망부 봉사자들은 지적/발달장애

를 가진 세 명의 장애인을 섬기고는 있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주일예배를 따르려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일에도 그 부모가 장애 아동을 번갈아 보면서 1부 예배나 2부 대예배를 형편이 닿는 대로 드리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서 총재님이 설교하시는 그 주일만은 부모님들이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서 몇몇 봉사자들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장애 아동을 돌보았다. 나는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재서 총재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감사를 드리는 주체는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감사의 회복이 우리 기독교인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두드리는 귀한 말씀에 정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시간이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는 발달장애를 가진 고은이와 함께 했다. 친교실 한 구석에서, 또 교회 뜰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



운영위원회

이재서 총재님과 함께



마이애미한인장로교회
주용성 목사님



마이애미밀알과 함께

한 시간을 가졌다. 스티커 부치기 놀이도 같이 하고, 놀이터에서 고은이가 좋아하는 그네도 같이 탔다. 팔짱을 끼고 교회 주변을 산책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고, 풀도 뜯고, 울타리 넘어 염소와 인사도 했다. 벤치에 앉아 책도 읽었다. 때로는 부모조차 고은이를 잘 제어하기 힘들어하셔서 그동안 주일에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였는데, 이날 우리 둘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주셨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있었다. 이전에는 발달장애아이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만 하고 정작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하지만 내안의 성령님께서 내가 마르다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고은이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다” 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친히 알려주셨다.

밀알선교단의 방문이 있는 지 5일이 지난 어제, 나는 고은이 아빠인 김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고은이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꼭 교회에 데리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다른 발달장애 또래 친구인 미조 엄마에게도 말씀을 드렸다. 우리 셋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일도 나는 1부 예배를 드리고, 짧은 주일 성경공부를 하고 고은이랑 미조랑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생각이다. 약간 떨리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장애인 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이 있기를 또한 기도한다.

우리 소망부 가족을 위해 먼 곳으로부터 오신 귀한 손님들이었지만, 그 분들이 품고 계신 장애인 사역에 관한 큰 비전도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작은 우리들이 세계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꿈꾸고 계신 그분들의 끊임없는 행진에 감히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모든 일에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일부분이 되어있기를 기도한다. 비록 2박3일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분들이 남기신 모든 것들이 싹을 내고, 잘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글 | 박민선 집사 (마이애미밀알 책임사역자)



주: 2018년 1월 19일-21일 이재서 세밀연 총재 내외와 정택정 미주 총단장 내외, 애들랜타밀알 최재휴 단장이 마이애미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고 마이애미밀알 책임담당 사역자로 박민선 집사를 임명하였다.



■ 2018 미주밀알단장회의

함께 맞잡은 손

2018년 한 해 동안 미주밀알의 각 지역 지단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우며 앞으로의 사역방향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위한 미주밀알단장회의가 2018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애틀랜타밀알선교단에서 열렸습니다.

17개 미주밀알 지단의 연합사역과 지단개척 및 후원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에 연락소를 개소하여 18번째 미주밀알의 지체를 세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밀알연합의 이재서 총재님과 미주밀알 정책정 총단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역 위원회장인 최재휴 애틀랜타밀알 단장님이 플로리다를 방문하여 연락소를 위한 지역교회와의 협의와 연락소장의 임명에 관한 논의를 완료하고, 미주밀알단장회의에서 함께 보고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텍사스밀알의 장애인 직업을 위한 커피숍 '빈야드 카페'를 위한 눈물겨운 준비와 또한 일을 시작한 장애인들의 밝은 얼굴과 지역사회의 반응들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사업추진과 그 영향력에 대한 사역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



간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특화된 장애인 활동으로 계속 탐구하고 시도하고 나누는 일이 밀알 단장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주밀알의 연합을 통하여 각 지단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맞잡은 손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연합사역이 이렇듯 지단개척을 통해서, 풍성한 사역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밀알가족들에게 기도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미주밀알단장회의를 통하여 지단장들은 각 지단의 사역의 장점을 서로 배우고, 사역자간의 멤버십을 고취하고, 힘든 길 가운데 고단함을 잊을 만큼 사랑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밀알의 사역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현장에 함께 있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

밀알의 썩어진 곳에서 밀밭의 꿈을 꾸는 미주밀알 단장회의는 그래서 늘 위로와 힘이 됩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미주밀알 사무국장)





■ 예수를 전하다

아르헨티나밀알 여름 선교여행

사각지대 해소하기 (INCLUYENDO LOS MARGENES)



아르헨티나밀알 가족들이 2018년 1월8일부터 2월3일까지 4주 동안 MISIONES 주에 위치한 APOSTOLES란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주밀알에서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17년 4월 9일: 아르헨티나밀알이 현지 장애인 선교를 위해 떠날 장소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요?”

2017년 4월 11일: 14년만에 신학교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 지금 아르헨티나 북쪽 미시오네스주의 작은 도시 아포스톨레스(‘사도들’이란 뜻)에 교회를 개척하여 어린이 주일학교에 장애아동들이 몇 명 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을까? 답이 왔다. 일단 가보자!

2017년 4월 30일: 아포스톨레스에 도착했다. 14년 전에 Instituto Biblico Rio de la Plata에서 공부하던 켈 어린 학생 (17살)인 Monica Obando 선교사를 다시 만났다. 남편인 Jonatan Acuna 목사님과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Centro Cristiano Fuente de Vida 교회를 개척했다. 주일학교에 약 50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다운증후군 아이 2명, 지적장애 아이들 2-3명, 언어장애 아이들 3명이 있다고 한다. 두 분과 얘기를 많이 나눴다. 9월에 강의를 계획할 계획을 세웠다.

2017년 9월 2일: 교회 인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 목회자협회에서도 동참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11 교회에서 60명이 모였다.





2017년 9월 3일: 장애인 부모님들과 만났다. 그들의 사정들, 작은 마을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이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눴다. 여름에 성경학교를 열자.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자! 2018년 1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로 계획했다.

2018년 1월 7일: 내일부터 시작할 성경학교를 위해서 먼 길을 다시 왔다.

2018년 1월 8일: 첫 ‘아르헨티나밀알 선교여행’이 시작했다. 4주간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에 장애 아동들 뿐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이 더 많다. 눈에 띄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으면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일반인인지 구별이 잘 안된다.

50명의 아이들을 위해 사방에서 먼 길을 떠나고 1주일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는 아이들의 기쁨의 목소리와 눈빛 덕분에 무더위를 견딜 수 있었다. 또 봉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고맙고 아름답다. 볼리비아 출신의 한 가정은 아르헨티나 남쪽 빠타고니아에서 3일 걸쳐서 3000km를 운전해 왔다. 원래 계획은 볼리비아로 가서 식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 중에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맘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또한 칠레에서 신학교 후배도 왔다. 바로 오는 항공표가 없어서 비행기를 2번 갈아 타고 버스를 8시간 타고 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일교회 성도들 10명이 버스로 13 시간 타고 왔고, 빠타고니아 네우켄에서 비행기로, 버스로 오기도 했다. 모두 합치면 약 11,000km를 달리고 각자 큰 돈을 투자해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것이다.

4주를 4팀으로 나누고 힘들지 않게 1주일씩 감당했다. 아침에는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고 오전 10시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말씀은 4주 동안 같았다: “Dios te ama, Dios es mi amigo, Dios me escucha, Dios me protege, Dios esta conmigo(주님은 날 사랑한다, 주님은 내 친구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은 날 지키신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매주 같은 이유가 있다: 이 아이들이 사는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거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고, 보통 12살부터 아이를 낳는 형편이니 어린 시절의 기쁨은 사라진다. 희망 없는 삶... 매주 같은 내용이면 말씀을 잊지 않겠지. 4주 동안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야지...

2018년 1월 16일: 오늘은 성경학교를 마치고 노방전도를 나갔다. 교회에서 약 2km 걸어서 20명이 구호품과 전도지를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집집마다 들려 “아픈 사람 있나요? 필요한 내용 있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쳤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 받는 사람들, 전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돌아오는 길에 전도지를 돌렸는데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4명이나 주시는 분을 만났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러 집으로 들어 갔더니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성경학교에 나오라고 초대했다.

2018년 1월 17일: 어제 만났던 청년 아빠랑 왔다. 그리고 어제 전도했던 동네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2018년 1월 18일: 수요일예배. 오늘은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많은 기적들이 보인다. 아침에는 가장 멀리서 오는 자페아 이사벨.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울었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잘 논다. 엄마가 이사벨이 매일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아이들 보다 더 멀리 살아 매일 버스 타고 오는 길이 쉽지 않다. 아빠도 아이가 좋아지니까 꼭 보내라고 한다. 이런 일은 이 동네에서 쉽게 보이는 일이 아니다. 이 동네에는 여자는 노예 같아 남자가 쉽게 집 밖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밤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함께 기도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2018년 1월 20일: 청년부 모임. 모임 중에 어느 부부가 교회에 들어왔다. 선교사님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울면서 대화를 나눈다. 날 불려서 같이 상담 하자고 한다.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 남편이 마음이 급해서 다른 동네 교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여자가 아니라고 해서 항상 앞으로 지나가는 교회, 애들 많은 교회로 가야 한다고 길 방향을 바꿨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살고 싶지요?”라고 물었다. “살고 싶으니까 여기를 왔지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 주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2018년 1월 21일: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때 기도 받았던 사람이 간증한다. 원래 머리가 아파 수술해야 했는데, 기도 받고 수술 전에 검사했더니 피 고인 자국이 없어졌다고 한다. 할렐루야!! 어제 구원받았던 부부가 교회 나와서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실로 하늘의 축제다. 너

무 기쁘다!!

2018년 1월 29일: 오늘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 두 번 째 주에 오셨던 집사님들이 다시 오셨다. 왜 오셨는지? 가족회의로 다시 성경학교에 오기로 했다. 큰아들이 다시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랑 지내자고 했다고 한다. 너무 감사하다, 솔직히 손이 부족했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18년 2월 2일: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다. 아이들을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4주간 공부한내용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 하기로 약속 했다. 주님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 또 이번 프로젝트로 만난 사람들이 장애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속 같이 협조하기로 했다. 다음 번엔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했다. 가자! 주님과 함께!!

글 | 이주희 전도사 (아르헨티나밀알 단장)



뉴욕

토요 사랑의교실 개강(성인반)

2018년 사랑의교실(청소년/성인반)을 개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소는 베이사이드 오피스(42-19 Bell Blvd., Bayside, NY 11361)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이블 교실을 신설하고 찬양 중심의 바디워십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좀 더 활기찬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이 신앙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단장회의

김자승 단장님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단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밀알의밤 행사 개최를 의논했습니다. 올해는 Youth Christians에게 귀감이 되는 인사를 초청해서 지역사회에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지단 활동 보고를 통해 사역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뉴욕선교합창단 이은숙 단장

김자승 단장과 스텝은 뉴욕권사합창단을 방문했습니다. 밀알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에 장애인 사역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합창단원은 아무리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도 돌봄과 관심이 없다면 장애인 문제는 우리들의 아픔으로 계속되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은 정기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어린이반

토요사랑의교실 어린이반이 개강했습니다. 언어/음악/미술치료 교실을 중심으로 자폐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아지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도 향상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제자매와 싸우지 않게 된 것만으로 토요 사랑의교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폐/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밝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밀알 사역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트 지원

뉴욕밀알선교단의 1년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적이고 확실한 재원이 없고, 이사회 구성도 약하기 때문에 KACF, 뉴욕시의회(폴 베론/피터구 등), 등 비정규적인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조마조마함 속에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밀알 창립 25주년 축하행사

뉴욕밀알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는 5월 5일 아드리안호텔에서 자축행사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문의는 718-662-8779 혹은 917-692-7755 입니다.

기도해주세요

- 샘 오 전도사의 건강 회복을 위해
- 토요 사랑의교실 간식 후원을 위해 (여전도회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Social Service

1월9일 유명희 내과 진료 / 1월16일 소셜 상담 / 1월29일 이순영 내과 진료

뉴저지

기쁜 우리 화요모임

1월 24일(화) 이현호 선교사님(몽골)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현호 목사님은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밀알 사역을 함께 하신 분으로 장애인 선교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화요예배를 꿈터에서 드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월 6일(화)엔 김주는 장로님께서 새롭게, 힘차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모든 밀알 가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기쁜 소식은 필그림선교교회 청년부(박

동훈 목사)에서 방문하여 밀알친구들의 2부 프로그램을 도와주셨습니다. 찬양 댄스에 아트까지 즐거운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그림선교교회 청년부는 매월 1회 방문하여 밀알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미용 봉사료 수고해 주셨던 박화주 집사님은 잠시 쉬시고 앞으로는 신수연 자매님과 또 새롭게 박지향 집사님(폴 어머니)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밀알에게 늘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친구 뉴/저/지/밀/알/선/교/단!!

사랑의교실, 방과후학교, 화요모임 오픈

100년만의 추위를 이기고 새해를 맞아 1월 3일 방과후학교, 1월 13일 사랑의교실, 1월 9일 화요모임, 1월 6일 중부밀알을 각각 오픈하였습니다. 겨울 방학이 짧은데도 우리 밀알 친구들이 밀알프로그램을 내내 기다려서 강추위에 한주를 더 쉬고 오픈하여 여러 부모님들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빛교회에서 진행하던 밀알 방과후학교는 3월부터 꿈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밀알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참빛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모임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부밀알 / 찬양교회 15 Cedar Grove Ln. Somerset
- 화요모임 / 밀알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 방과후학교 / 밀알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 본부 사랑의교실 / 갈보리교회 West Madison Ave. Dumont

미주단장회의

- 강원호 목사님은 1월 23일(월)-26일(금)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주단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20일(토)엔 꿈터가 위치한 새들부룩 시장취임 갈라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직원이동

그동안 밀알에서 한 가족으로 지내며 밀알 사역에 헌신하신 방과후학교 담당 공성에 선생님께서 파라과이로 선교를 가시게 되어 1월 말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방과후학교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

로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화요모임을 비롯하여 밀알의 제반 사역을 돌보시던 박성민 전도사님께서도 가족이 모두 뉴욕으로 이사를 가심에 따라 1월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30일(화) 밀알 화요모임에서 두 분의 환송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길로 떠나시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는 '한혜영' 선생님께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한혜영 선생님은 교회 '엄마랑 아가랑'의 교사사이며 뉴저지 연합교회 장애아동부서 은혜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2월부터 밀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화요모임을 위해 박성민 전도사님이 떠나신 자리에 '김재철'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장애자녀를 두신 아빠로 밀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2018년 꿈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멋지게 펼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직원 수련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일 년 동안 밀알의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하여 직원들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밀알에게 허락하신 꿈터에서 1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밀알 사역의 모든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날 저녁 6시 30분에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한 미팅을 가졌고 1월 6일(토)에는 이상 기운으로 말미암아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스텝들이 사랑의교실 행사와 밀알 전체 행사를 위하여 의논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예배 장소 이전

밀알이 4년 동안 기도하던 꿈터를 하나님께서 2017년에 열어주시고 12월에 사랑의 집을 처분하고 꿈터로 이전도 하게 하셨습니다.

2018년 1월 2일(화)은 쉬고 1월 9일(화)부터는 밀알의 화요예배를 드디어 꿈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더욱 확장 시키고자 허락하신 꿈터에서 새롭게 화요예배를 시작하며 꿈터가 장애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

2018년 신년 사역이 시작되다

신년 2018년을 맞이하여 잠시 휴식에 들어갔던 밀알사역의 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단장님과 스텝들이 시무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열정을 다짐하였습니다. 9일(화) 오전 11시, 밀알선교센터에서 드려진 시무예배에서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밀알을 섬기되, 금년에 계획된 많은 밀알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심을 다해 달려 나가자."는 말씀을 증거 해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면에 풍성히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13일(토) '토요 사랑의교실'이 신년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아동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환한 얼굴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해부터 디렉터로 사역하게 된 '주양명 목사님'은 일찌감치 선교센터의 문을 열고 친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아동들을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길 것입니다. 성인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 모임인 '믿음의교실'도 16일(화) 신년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료로 지내던 장애인들은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만나듯 정겹게 새해 첫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문재민 목사님'이 이끄는 찬양팀의 찬양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고 민수기 6장을 중심한 단장님의 설교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얼굴을 비취시며 평강을 안기신다."는 기대감을 유발하는 열정적인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광고시간에는 단장님의 '깜짝 세배'가 단원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2부에는 신년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단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이 성년다운 성숙한 모습의 사역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31주년 자축(2월 6일)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이 2월 5일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87년 2월 5일, 당시 템플대학교에 유학중이던 시각장애인 '이재서 전도사님'이 '삼일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밀알선교단이 산골짜기의 샘물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만들어 바다로 흐르듯이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지듯 자그마하게 시작된 필라델피아밀알이 초석이 되어 31년의 세월이 흘렀고, 17개 지단 미주 밀알선교단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월 6일 '화요 믿음의교실'에서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손주한 사모님이 준비하신 축하 케이크에 접화하고 절단하며 조출하게 자축행사를 가졌습니다. 밀알선교단은 매달 보내오는 후원자들의 기도와 사랑, 필라델피아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장애인 전도·봉사·계몽 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미주밀알 단장 수련회 애틀랜타에서 열리다

연초가 되면 미주전역에 흩어져 사역하던 단장님(지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을 의논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금년 2018년에는 애틀랜타밀알(단장: 최재휴 목사)이 호스트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남미를 제외한 북미(캐나다 포함) 전 단장님(지소장님)들이 3박 4일 동안 진행된 Conference를 통해 많은 정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귀한 시간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새해에 펼칠 밀알사역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담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단장 Conference 스케치>

23일(화): 미주 전역에서 단장님(지소장님)들이 속속 애틀랜타에 도착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단장님들이 함께 의논할 현안에 대한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총재 이재서 박사님을 비롯한 총단장 정택정 목사님(워싱턴), 부총단장 이재철 목사님(필라델피아), 지역 총단장: 강원호 목사님(동부), 최재휴 목사님(중부), 장영준 목사님(서부), 그리고 사무국장 김정기 목사님이 미리 모임을 가지고 이번 단장 회의에서 의논할 사항들을 조율하였습니다.

개회예배: 사회는 부총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인도하였으며 기도에는 김신기 목사님(캐나다 밀알)이 해주셨습니다. 설교는 이재서 총재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처럼 '한 알의 씨앗이 되어야 하며, 땅에 떨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부에는 부총단장 사회로 각 지단별로 나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일(수): 금년 단장 컨퍼런스에서는 밀알 10대 강령을 새롭게 조명하며, 장애인사역의 나아갈 길을 도모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습니다. 오래된 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용어와 명칭

에 대한 수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애틀랜타밀알 이사이신 천경태 장로님을 통해 단장 은퇴와 연금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미주총단에 주요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밤에는 직접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텍사스밀알 보고와 이재근 단장님의 커피 핸드드립 시범을 관람하며 시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목): 회의를 마치고 애틀랜타에 명소를 돌아보며 단장들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26일(금) 오전에 단장님(소소장님)들은 모두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내년 2019년은 밀알선교단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에는 세계에 흩어져있는 70개 지단 밀알사역자들이 서울에서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며, 밀알지도자학교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섬겨주신 애틀랜타밀알 최재휴 단장님과 스텝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마음 따뜻한 분들을 필요합니다. 성인장애인 모임인 '화요 믿음의 교실(매주 화요일)'에 장애인들을 라이드해 주실 분, 악기연주와 찬양으로 모임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봐주실 분들도 기다립니다. Youth Group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Credit을 발행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봉사한 학생에게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9학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215-913-3008

믿음의교실 <매주 화요일 PM. 7:30분-9:30분>

16일: '신년기도회'-금년에 전개할 밀알사역을 위해 기도할 분 아니라 개인기도제목을 고백하고 단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일: '영상감상'-장애 아동들이 장기마라톤 경기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30일: '알고 싶어요!'-토요 사랑의교실 새로운 디렉터로 부임하신 주양명 목사님과 작년에 등록하신 이기향 장로님을 앞자리에 초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하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 AM10:00-PM4:00>

10:30 환영/10:50 찬양과 예배/11:30 성경

읽기, 그림 그리기/12:00 점심식사 /1:00 야외 활동/2:00 영화 감상, 작품 활동/3:00 핸드벨 연습/4:00 정리 및 폐회

13일: 2018년도 첫 토요 사랑의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4주 만의 모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갑자기 떨어진 기온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모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7-8년 동안 사랑의교실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학업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사라와 만나 자매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동생인 해나가 함께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고 난 후,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체조와 국민건강생활체조를 했는데, 입으로 구령을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습니다. 몸을 풀기 위해 볼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 순서를 묵묵히 기다리고 스코어에 상관없이 열심히 공을 굴리고 기뻐하는 모습들 속에서, 참 순수한 아이들의 속사람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20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고 난 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살면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겠노라고 다짐을 시키며 도전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체조와 청소년체조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자칫 식곤증으로 인해 게을러지기 쉬운 아이들이 집중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씩 나와서 공을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게임을 통해 집중하고 공을 차고 함께 기뻐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핸드벨을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반주를 담당하는 진우가 참석을 못해서 반주 없이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맡은 파트를 열심히 담당하려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27일: 지난주에 늦잠을 자서 못 나온 친구도 있고, 요즘은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지 은근하게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들 늦게

나옵니다. 준서가 엄마랑 떨어지기가 싫어서 조금 때를 썼지만, 자원봉사자 은주가 잘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색칠공부를 하면서 오늘 배울 말씀을 미리 익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읽고 난 후,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어야 할 형제인데,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 그들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지 도전하며,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것을 도전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사람씩 나와서 야구 배트로 공을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들은 함께 손을 맞잡아주며 배트를 휘둘러 주었습니다. 휘두르는 배트에 공이 날아갈라치면 자원봉사자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핸드벨 연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연습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내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식사봉사: 13일-'필라제일장로교회' '안수경 사모님' 20일, 27일-차체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15-913-3008

단장 사역 보고

<제직세미나> 뉴욕: 5일(금)-6일(토) 오후 8시. 뉴욕주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

<가정세미나> 애틀랜타 '행복한 가정 만들기': 27일(토)-28일(주일): 애틀랜타 갈보리교회(최진목 목사 시무) <카페 로템>

<설교> 2일(화) 오전 11시-필라목사회 임원기도회(장소: 한마음장로교회), 오후 7:30분-인터넷복음방송(김종환 목사) 신년 첫 예배 / 3일(수): 오후 8시-첼트햄장로교회 / 21일(주일): 구세군교회(박도성 사관 시무) / 27일(토): 오전 10:30분-애틀랜타밀알선교단 토요 사랑의교실 / 28일(주일): 오전 9:30분-애틀랜타에벤에셀교회(김창환 목사 시무) / 오후 2시-애틀랜타제일장로교회(서삼정 목사 시무) 드보라 4선교 헌신 / 31일(수): 오후 8시-첼트햄장로교회

<방문> 8일(월): '필라문인협회' 임원회의 / 14일(주일): '영생장로교회'(백운영 목사 시무) / 20일(토): 오후 6시 '필라평통 신년하례회'(회장:정미호) 한식당 가야-만찬기도.

재정보고 2018년 1월

뉴욕

수입부: \$15,266.00

개인: \$3,940.00

\$20 Hee Sook Kong / \$30 Myung Cha Choi / \$40 Kil Do Yoo / \$50 Kyong C Burchan, Insook E Solomine, Soon Hee Hwang / \$100 Seop Song, Soon Kyu & Grace Shin, Katherine Lee, Cha In Kim, Young Chul Park / \$150 Jasong Kim & Byongin Choi, Samuel Choi / \$200 Kyungeh Kim, Susie H Kim / \$500 KI R Chung, 무명, P J Kim / \$1,000 Mary Choi

교회/단체: \$9,382.00

\$20 Sky Cleaners / \$30 KS Nail / \$100 Salon Today, Woori Church of New York, The Siloam Reformed Church, Myung Sung Church, New People's Church, New York Logos Presbyterian Church / \$200 New Hope Reformed Church(사랑의교실), One Heart Church of New York / \$30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 \$400 Savior Presbyterian Church, True Worshiper's Church / \$500 Pure Presbyterian New York Church / \$510 Class Agape / \$600 The First Korean Church of Brooklyn / \$610 Bib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디모데선교회) / \$1,000 Dashing Diva Franchise Corp / \$1,012 화요모임 / \$3,000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Queens

지정: 1,944.00 SSI

장소후원:

퀸즈한인교회 토요사랑의교실(어린이반) / 뉴욕장로교회 토요사랑의교실(성인반) / 퀸즈성결교회(조승수 목사) 화요찬양예배

물품 및 음식후원:

권영준, 더큰집, 토요 Society, 월사모, 광승현, Long Island Mom, 하은 희낙원잔치집, 한마음시스템, 구주원꽃집, 총영사관부인회, Kyle's Kimchi, Paldo

지출부: \$23,238.10

장애인복지출: \$4,366.60

모기지 \$3,413.34 / Gas \$374.87 / 소독비 \$50 / 비품구입비 \$341.25 / Spectrum Cable \$187.14

사랑의교실: \$3,695.13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어린이반&성인반) \$2,850 / 비품구입비 \$245.13 / 식사&간식비 \$600.

선교비: \$3,596.61

직원인건비(2명) \$1,379.29 / 상회비(2017년 12월) \$782.32 / 밀알 & 세계 \$835 / 홍보비 \$600

전도봉사비: \$3,265.97

활동비 \$800 / 경조비 \$244.57 / 장애인보조 \$1,000 / 출장비 \$421.40 / 화요모임 \$800

사무비: \$5,958.93

직원인건비(2명) \$3,271 / 전기 \$384.62 / 세금 \$1,124.56 / 비품구입비 \$16.54 / 수리비 \$83.63 / 은행비 \$28.58 / CPA Fee \$900 / Retirement Benefit \$150

차량유지비: \$2,354.86

모기지 \$488.68 / 보험 \$535.03 / 유지비 \$517.65 / EZ Pass \$630 / 수리비 \$130 / Parking Fee \$53.50

전월이월금: \$20,466.79 | 차월이월금: \$12,494.69

밀알의밤 지출: \$2,101.00 사무실 렌트비

뉴저지

수입부: \$47,549.00

개인: \$14,010.00

\$10 Sugene April Kim, 김현진, 손주형, 이충희&이미경, 최윤경, 홍은실 & 이성운 / \$20 Young I Kim, 김선식, 안영근 / \$30 Rok Hur, 김현경 / \$40 홍성혁 / \$50 김봉례, 엄이든&엄예든, 이경호, 무명 / \$100 김영옥, 김일영, 서정용&서덕희, 신용호, 이영택, 이상욱&이욱진, 최선호, 추필립, 한원민 / \$150 박찬호 / \$200 황승희&황규진 / \$250 김재언, 강원호 / \$300 민병해&민양자, 박희열, 무명 / \$1,000 무명 / \$10,000 무명

교회: \$3,890.00

\$40 베다니연합감리교회 / \$50 산소망교회 / \$100 KCC 사심나교회, 예수드림교회 / \$200 베겐카운티장로교회, 땅끝교회(모세회) / \$300 뉴저지하비스트엘리아선교회 / \$600 하나임교회 / \$1,000 찬양교회(선교

회), 은혜와사랑교회

단체: \$1,064.00

\$50 Highwood Auto Service / \$53.73 New York Uni. / \$60 Young At Heart / \$100 Morgan Stanley / \$30 박홍식통증전문의원 / \$500 ADIO Corrective Chiropr.

장애인 꿈터 지정: \$25,600.00

\$100 홍효선 / \$25,500 사랑의집 매매

지정후원금: \$2,985.00

<방과후gkry \$1,070: \$70 김예은 / \$100 최다슬 / 이신구&이지은 / \$200 김혜성, 오은희&오수잔 / \$400 강한선>, <방글라데시 \$1,385: \$100 이한창 / \$285 Texas Milal Mission / \$1,000 Eunjin H.Suh DDS> <화요모임 \$530: \$200 필그림권사회 / \$330 화요 송년의 밤>

지출부: \$32,738.00

사무관리비: \$10,258.00

간사인건비(4명) \$3,606 / 세금공과금 \$4,864 / 보험비 \$423 / 복사기 리스 \$354 / 은행경비 \$50 / 전화비&인터넷 \$278 / 사무용품비 \$80 / 신문구독료 \$113 / 우표구매 \$490

선교비: \$16,347.00

단장사례비 \$2,500 / 단장 사택지원비 \$2,960(1,2월) / 선교활동 \$3,349 / 이벤트 \$1,000 / 방과후학교 \$900 / 화요모임 \$936 / 본부 사랑의교실 \$2,284 / 중부사랑의교실 \$700 / 밀알&세계 인쇄&발송 \$1,259 / 상회비 \$323 / 단장회의 비행기티켓 \$136

장애인 꿈터: \$6,133.00

이자(2명) \$4,200 / 변호사 \$500 / 유틸리티&유지비 \$793 / 청소비 \$400 / 장애인 생활 지원비 \$240

차월이월금: \$14,811.00

장소후원: Calvary UMC, 참빛교회, 찬양교회

음식후원: 초대교회, 필그림교회, 디미방, 아리랑왕만두, 은하수잔치집, The 12 Baskets

필라델피아

수입부: \$5,510.00

이사회비: \$300.00

\$100 이재철 / \$200 차형원

개인: \$2,110.00

\$20 고영선, 김진홍, 문재민, 박산, 손주환, 이경애, 지영찬 / \$40 정연희 / \$50 양찬모, 이광영, 장근자 / \$100 김선미, 김종환, 이기복 / \$120 Jennifer Lee / \$150 정문호 / \$200 소인실, 이재철 / \$300 박종록 / \$510 무명

교회: \$2,800.00

\$100 기쁨의교회 / \$200 첼튼햄장로교회 / \$300 안디옥교회, 해리스버 그한인장로교회 / \$9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 \$1000 필라한인연합교회

단체: \$100.00 마디병원

특별지정헌금: \$200.00 예수사랑교회

지출부: \$10,012.89

선교비: \$4,516.64

장학금 \$300 / 상회비 \$222.80 / 본부사역 분담금 \$1,800 / 단장사례비 \$1,200 / 활동비 \$300 / 자동차 보험비 \$158.08 / 가스 및 심방경비 \$264.36 / 단장회의출장비 \$171.40 / EZ-Pass \$100

사무관리비: \$980.69

간사사례 \$600 / 통신비 \$167.42 / 믿음의교실 \$100 / 사무용품 \$29.97 / 폴더 구입 \$51.87 / 화장실 Paper Towel \$31.43

건물 유지비: \$857.16

모기지 \$300 / 정수기 사용료 \$38.99 / 전기세 \$297.06 / 난방비 \$142.61 / 인터넷 \$78.50

사랑의교실: \$1,0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800 / 사랑의교실 교육비 \$200

미디어선교: \$1,458.40

밀알&세계 발송비 \$181.77 / 밀알&세계 인쇄비 \$835 / 홈페이지 도메인리뉴 \$167.88 / 우표 \$48.75 / Bulk Mail Renew \$225

복지부: \$1,200.00 사택보조비

전월이월금: \$15,820.25 | 차월이월금: \$8,727.50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301호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 Tel: 301-294-6342 / Fax: 301-294-6195 / Email: milalusa@gmail.com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 www.nymilal.org

42-19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 Tel: 718-662-8779 / Fax: 718-445-4887 / Email: nymilal@hotmail.com
Group Home: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Tel: 718-445-4442 / Fax: 718-445-4887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토요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아동반: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청소년반/성인반: 뉴욕장로교회
그룹홈 운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Group Home
컴퓨터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00 ~ 3:00	Group Home
Cooking Class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Group Home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월사모)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6:00 ~ 9:00	
직업재활(교회청소)	성인대상, 교회 환경 미화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 www.mijumilal.org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 Tel: 201-530-355 / 201-843-8808 / Email: miju92@gmail.com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분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Calvary UMC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중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찬양교회	15 Ceder Grove Ln, Somerset, NJ 08873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30	밀알 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 www.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민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미주밀알선교단 워싱턴 / 볼티모어 / 버지니아 / 리치몬드 / 샬럿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뉴저지(중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남가주LA / 남가주OC / 텍사스 / 하와이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유럽밀알선교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오스트리아 / 화란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한국밀알선교단 강원 / 경기 / 고성.사천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김해 / 거제.통영 / 경남(진해) / 마창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파주 / 양산 / 경기광주

기타밀알선교단 뉴질랜드 / 호주 / 러시아 브리야트 / 인도 / C국(A,B) / 태국 / 네팔 / 이집트 / 카자흐스탄